

2. 고려시대

1) 불 상

(1) 선암사 철조여래좌상(鐵造如來坐像)

이 불상(전체 높이 140cm)은 각황전의 주불로 봉안되어 있으나 호분이 짙게 발라져 있어 철불의 이미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선암사는 정유재란 때 소실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 철불 역시 이때 큰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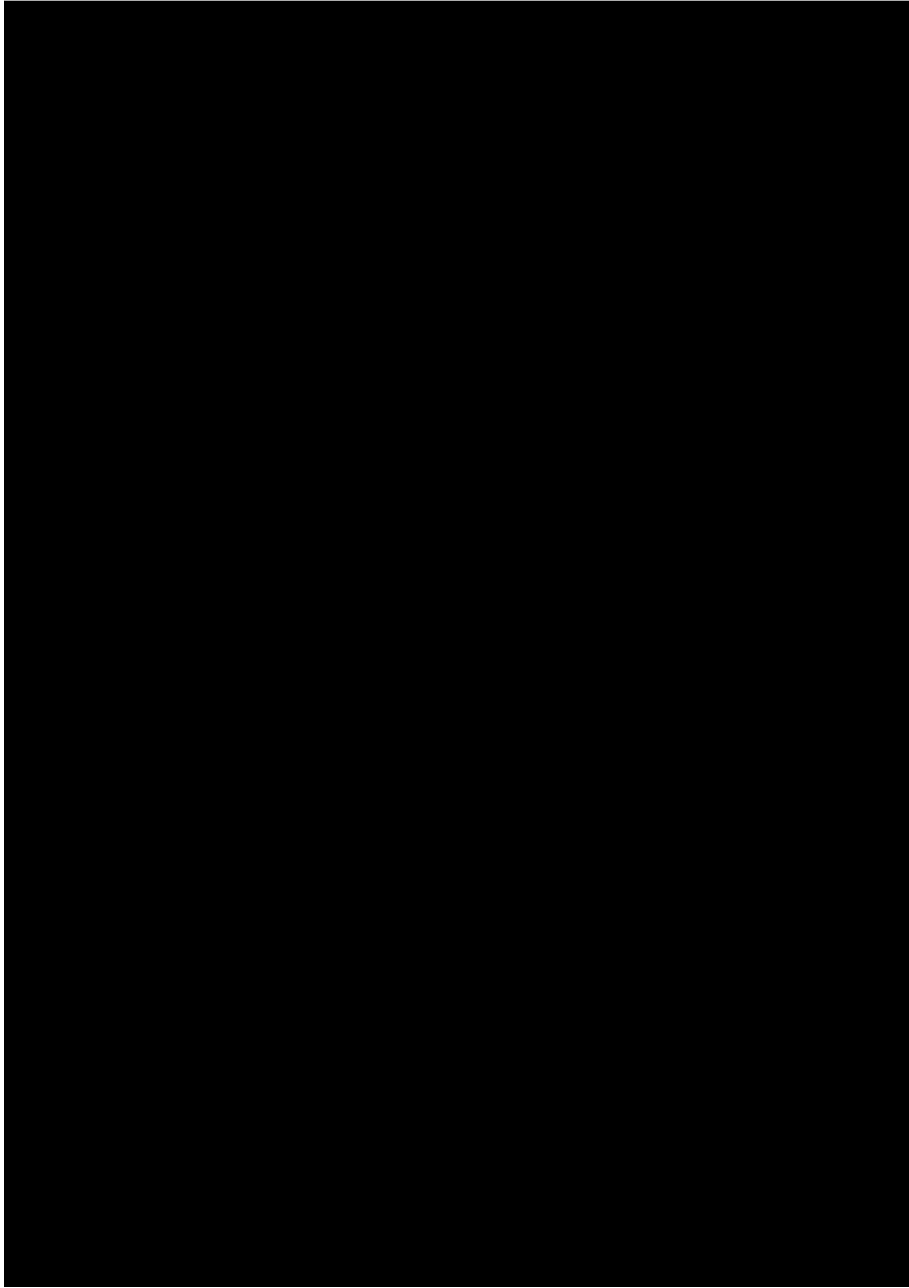
상호는 크게 손상을 입어서 근래에 보수하였기 때문에 원형을 알 수 없다. 얼굴의 전체 형태는 역삼각형에 가깝고, 보림사 철불처럼 눈두덩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목에는 큼직한 2조선의 삼도가 보이며 귓불이 유난히 두툼하다.

법의(法衣)는 인도 간다라 불상양식처럼 우견편단인데 왼쪽 목부위에서 오른쪽 가슴으로 뻗어내린 옷주름은 거의 사선에 가깝다. 무릎 위에는 옷주름이 높게 솟아 있고 그 사이에는 희미하게나마 변화식의 의문(衣紋)이 보인다. 양 무릎 사이의 의문은 석굴암 본존불상의 의문처럼 부채꼴 모양으로 대칭되게 처리하였다. 양 어깨선은 자연스럽게 표현되었으며, 젓가슴은 약간 돌아나 볼륨이 있고 무릎은 높게 만들었다. 수인은 항마촉지인으로 오른손의 다섯 손가락은 곧게 펴서 무릎에 대었으며, 왼손은 복부 앞에서 법륜인을 하였다. 대좌는 유실되고 없다.

각황전 철불의 조성시기는 두툼한 눈두덩, 볼륨 있는 가슴, 양 무릎 사이에 퍼진 부채꼴 모양의 대칭 의문 등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양식을 찾을 수 있으나, 우견편단의 사선이나 높고 너비가 넓은 무릎 등으로 볼 때 고려 초기 작품으로 추정된다.

(2) 선암사 마애여래입상(磨崖如來立像)

청파전 왼편에는 대각암(大覺庵)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 이 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왼편의



선암사 마애여래입상

큰 암벽 벽면에 마애여래입상이 음각되어 있는데, 방향은 동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 마애불은 높이가 5m에 가까워 거불에 속하며, 입상으로는 전남지역에서 가장 큰 불상이다.

상호는 평면적으로 처리하여 넓은 편이다. 머리는 나발인데 호형의 선각을 이어서 표현하여 회화성이 짙다. 머리 중간부분에는 계주를 긴 타원형으로 표시하였다. 이마의 중앙에는 백호가 있으며, 눈은 가늘고 눈초리는 치켜 올라가 있다. 양 눈썹 사이에서 내려온 코는 콧불이 유난히 좌우로 퍼져 크게 만들어졌고 입은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되었다. 귀는 월출산 마애여래좌상처럼 평면적으로 처리되었고 긴 편이며 목에는 삼도를 음각하였다. 이와 같은 상호는 우리나라의 다른 불상들과 서로 친연성이 적은 이국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 전남지역에는 장흥 용화사 약사여래좌상, 보성 금화산 마애여래좌상, 북내 반석리 석불좌상 등의 상호에서 이국적인 인상이 풍기지만 선암사 마애여래좌상의 상호는 이와 달리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법의는 우견편단으로 왼쪽 어깨에서 흐르는 의문은 허리 아래로 수직으로 내렸고, 왼쪽 가슴 아래는 호형이다. 드러난 가슴부위에는 만(卍)자가 선명하고 크게 새겨져 있다. 수인은 오른손을 다리부분까지 수직으로 내려뜨려 손가락을 펴고 있으며, 왼손은 팔을 굽혀 가슴 위에서 엄지와 약지를 펴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구부린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마애불의 발 아래쪽으로는 현재 땅 속에 묻혀 있어서 발부분과 대좌의 유무는 알 수 없다. 마애불의 아래쪽 좌측에는 “갑진삼월 일(甲辰三月 日)”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연호가 없어서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으나 조성시기를 나타내주고 있는 명문임에는 틀림없다. 이 마애불은 선각으로 조성된 거불로 조계산의 유일한 마애불이다.

선암사 마애불은 상호에서 풍기는 이국적 표현이라든가 법의의 도식화된 의문, 신체 상단에 비해 간략화된 하단 등으로 볼 때 조성시기는 고려 중기부터 후기의 어느 때에 해당된다고 추정된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 각 지역으로 불교가 더욱 확산되어 각 지역마다 독특한 양식의 불상이 조성되는데, 선암사 마애불도 이런 추세에 지역적 특색을 지닌 불상으로 파악된다.

이 마애불의 규모는 암벽 높이 7m, 암벽 너비 2m, 불상 높이 4.8m, 어깨 너비 1.55m, 가슴 너비 1.2m이며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57호로 지정되어 있다.

(3) 석현동(石峴洞) 마애여래좌상

향림사 뒤편 계곡 석현동 산1-1번지에 있는 이 마애불은 현재 파손이 심해 불상의 형체만 남아 있고 주변에 파편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이처럼 파손된 것은 한국전쟁 때의 일이라고 한다.

현 상태로 마애불의 세부양식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알 수 있어 다행이다. 귀는 길게 늘어져 어깨에 닿으며 턱의 형태로 보아 목이 아주 짧아 거의 없어 보인다. 법의는 좌측면을 보면 우견편단임을 알 수 있다. 상의 자세는 좌상인데 양 무릎의 너비가 넓어 안정감 있게 처리되었다. 광배는 원형의 두광과 주형의 신광이 양각으로 뚜렷이 조각된 주형거신광이다. 대좌는 몇 잎의 커다란 양련이 조각된 양련좌이다.

현 상태에서 볼 때 이 마애불의 가장 큰 특징은 고부조(高浮彫: 높은 돌을새김)라는 점이다. 마애불의 새김은 크게 음각과 양각기법으로 구분되는데, 돌을새김인 양각기법은 대상 불상의 외형을 그대로 둔 채 주위 바위면을 제거함으로써 불상의 형태를 두드러지게 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새긴 마애불의 대표적인 예는 서산마애불, 경주 굴불사지 사방불, 경주 남산

칠불암 본존불, 영암 월출산 마애불 등이 있지만 석현동 마애불과 같은 양각기법은 아주 드문 편이다. 어깨부분의 두께(양각부분)는 32cm이고 무릎부분의 두께는 무려 63cm나 되는 고부조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마애불은 파손이 심하여 세부 양식 파악이 곤란하므로 조성시기를 추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어깨까지 내려온 귀, 짧은 목, 법의의 조잡한 의문, 넓은 무릎 너비, 대좌의 큼직한 앙련, 고부조의 조각기법 등으로 볼 때 조성시기는 고려 후기로 추정된다.

마애불이 양각된 바위는 너비 3.6m, 높이 2.7m이며 불상의 크기는 좌상 전체 높이(추정) 1.9m, 불상 높이 1.6m, 어깨 너비 0.8m, 무릎 너비 1.1m이다.

(4) 주암면 창촌리 석불입상

이 석불입상은 주암면 창촌리 425번지의 밭 가운데에 있으며, 무릎 이하는 매몰되어 있다. 상호는 원만상이며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소발의 머리 위에는 육계가 있으나 파손이 심하며, 이마의 중앙에 조그마한 백호공이 있다. 렌즈형의 두 눈에는 눈동자가 표현되어 있고 눈두덩은 반호형으로 양감이 풍부하다. 미간에서 흘러내린 코는 콧볼이 유난히 크고 인중은 긴 편이다. 두툼한 입은 다물고 있으며, 턱에 일조선의 호형 음각선을 넣어 양감 있게 처리하였다. 두 귀는 짧은 편이고 목에는 형식적인 삼도가 있다.

법의는 우견편단이다. 오른손 밑과 왼손을 중심으로 몇 선의 호형이 있고 중앙으로는 긴 U자형이 반복되어 무릎부분까지 내려갔다. 수인은 오른손이 시무외인(施無畏印)이고 왼손이 여원인(與願印)으로 통인인데, 왼손의 위치가 허리 윗부분까지 올라와 있어 불안하다. 무릎 이하는 시멘트 밑에 매몰되어 있어 대좌의 유무는 파악할 수 없다. 어깨선이 너무 좁게 꺾어져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며 가슴의 볼륨도 없고 허리도 어깨의 폭과 일치하여 신체의 조각은 상호에 비하여 조잡한 편이다.

이 불상은 나주 만봉리 석불입상과 형식상 친연성이 많으며, 단아한 상호와 평면적인 의문처리 등으로 볼 때 조성시기는 고려 후기로 추정된다. 규모는 현 높이 155cm, 머리 높이 50cm, 머리 너비 33cm, 어깨 너비 58cm이며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51호로 지정되어 있다.

(5) 주암면 행정리 석불입상

주암면 행정리 행정저수지 아래 논가의 당산나무 밑에 있는 이 석불은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부분 밑까지 톱으로 자른 듯 비스듬히 2등분되어 있다. 상호는 장방형에 속하며 마멸이 심해 윤곽만 보일 뿐 세부양식은 파악하기 힘들다.

이 불상은 장방형에 가까운 상호와 거의 직각을 이루고 있는 어깨선 그리고 법의의 의문처리 등으로 볼 때 너무도 간결하여 제작연대를 조선시대의 민불로 추정하기도 하나, 불상의 육중한 맛으로 볼 때 고려 후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이 불상의 규모는 전체 높이 180cm, 머리 높이 82cm, 머리 너비 48cm, 어깨 너비 78cm이다.

(6) 선암사 천불전 금동관음보살좌상(金銅觀音菩薩坐像)

이 금동보살상은 1988년 천불전(千佛殿) 수리 때 상단 서까래 부분에서 발견되었다. 처음 출

토 때에는 검게 그을려 있었는데, 이듬해 선암사에서 개금하여 지금은 아주 화사하며, 대좌의 밑부분만 약간 그을린 흔적이 있을 뿐 손상된 부분은 전혀 없다.

머리에 쓴 보관(寶冠)은 삼면관(三面冠)의 형태를 유지하고 복잡한 문양이 장식되어 있으며 중앙에는 화불(化佛)이 있다. 머리는 틀어 올려 묶었는데 열십자 모양을 갖추었고 보관 밑 연주문과 이마 사이에는 정연하게 빗은 머리카락이 완만하게 처져 내려와 있는데, 이러한 형식은 고려 중엽까지 보이지 않는 형식이다. 상호는 넓적하고 평편한 형식으로 라마교 불상양식을 닮았다. 짧은 목에는 삼도가 형식적으로 돌려 있고, 가슴 상단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금강산 출토 금동관음보살좌상과 호림미술관 소장의 금동관음보살좌상같이 화려한 장신구가 있다.

수인은 아미타여래의 미타정인처럼 하품하생(下品下生)을 나타내고 있는데 왼손은 가슴 앞에 들었고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에 대고 있다. 자세는 길상좌(吉祥坐)의 좌상이다. 대좌는 양복련(仰伏蓮)의 연결형식으로 상하 연화문은 서로 대칭이다. 대좌의 평면은 삼각형에 가깝고 상하단에 연주문이 돌려져 있으므로, 전형적인 라마교 불상의 대좌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금동보살좌상은 보관, 상호, 화려한 장신구 그리고 대좌의 형식 등으로 볼 때 고려 후기 라마교 불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따라서 제작시기는 고려 후기나 조선 전기로 추정된다. 크기는 전체 높이 16.8cm, 좌상 높이 12cm, 어깨 너비 4.5cm, 무릎 너비 8cm, 무릎 높이 1.7cm, 대좌 높이 4.8cm, 대좌 너비 11.3cm이다.